

미드필더십



최 희 철 연구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

나는 축구를 무척 싫어한다.

2002년 월드컵경기때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4강 진입으로 온나라가 태극기의 물결로 바뀌면서 그래도 보는 것은 좋아하게 되었지만 군대를 갔다오고 난 이후부터는 축구 자체를 싫어했고 보는 것조차도 싫어하게 되었다.

내가 원래부터 축구를 싫어한 것은 아니다. 어릴 때 동네 골목에서 너털너털한 축구공을 차가며 매일 친구들과 축구를 즐겼다. 내가 중학교 2학년때 우리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는데 국가대표팀 축구경기를 할 때면 온 동네사람들이 유일하게 티비가 있었던 집 너른 마당 위 멍석에 앉아서 축구경기를 관람했다. 일본과의 축구경기를 할 때면 어린 우리들은 숨을 죽이며 손에 땀을 쥐었다.

그러다가 축구를 싫어하게 된 것은 군대에 가게 되면서 부터다.

훈련소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후반기 교육을 받은 후 자대에 배치 받았다. 우리 중대는 나와 같이 자대배치를 받은 동기 하나, 그리고 한 달 위 고참 3명 등 5명을 제외하고 90여명이 모두 상병, 병장이었다. 대부분의 군대에서 그랬듯이 우리중대 고참들도 몹시도 축구를 좋아했다. 매주 각 중대가 모여 축구 경기를 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었다.

축구경기가 끝난 후 우리 2명의 졸병을 포함해 5명의 일병, 이병은 일명 집합을 해야 했다.

이겼을 경우라도 집합을 피하지는 못했다. 이기면 이기는 대로 왜 백패스를 하다가 공을 빼앗겨서 꼴을 먹었는지, 수비가 뚫려서 점수를 주었는지, 경기내내 졸병이 뛰지 않고 걸어다녔는지 하



면서 우리는 평가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맞아야 했다.

이겼을 때도 이러할진대 패했을 경우에는 참혹한 일차레가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온몸은 황토로 덮히고 엉덩이에는 피멍이 들어야 일차레와 구타의 시간은 지나갔다.

한번은 그 시절 하나밖에 없었던 프로축구 팀이었던 '할렐루야축구단'이 우리 부대를 방문했는데 그들과 축구경기를 했다. 프로축구팀과의 경기에서 지는 것은 당연한데도 우리는 경기 후 참혹한 일차레와 구타를 피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축구가 끝나면 지나가야 하는 홍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 졸병들은 축구장에만 들어서면 더 일어버렸고 더 더욱 실수를 하게 되면서 우리는 경기 뒤의 사후정산을 피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술 한잔 걸치면 군대갔다운 이야기를 하게 되고 특히 군대에서 축구했던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나 나는 이런 뼈아픈 경험 때문에 군대에서의 축구 무용담에 대하여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해본 일이 없다. 그 기억을 회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축구를 싫어하게 되었으며 한동안은 축구를 보는 것조차도 좋아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을 보면서 나의 축구에 대한 아픈 기억은 사르르 사라졌다. 태극전사들의 경기를 보면서 나는 축구경기에 빠



져들었다.

특히 미드필더인 산소탱크 박지성의 경기 운용은 너무도 빛이 났다. 자신이 직접 볼을 넣지 않으면서 전방의 공격진에게 적절하게 공을 배급하여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 주고 좌우 미드필더와도 거리를 넓히고 좁혀가면서 또 공격진과 수비진과의 끊임없는 조율을 통해서 공격과 수비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자신이 공적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팀이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미드필더의 역할이다. 중원의 싸움에서 지고 이기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승패는 좌우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상부상조와 모범의 표본이 바로 미드필더인 것이다.

연구에서도 미드필더와 같은 연구원들이 필요되는 때이다. 외국의 선진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험실에 들어가 실험을 하고 논문을 쓰고 그럴 때에는 외로운 마라톤과 같은 게임이 연구이다.

“

자신이 공적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팀이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미드필더의 역할이다. 중원의 싸움에서 지고 이기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승패는 좌우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상부상조와 모범의 표본이 바로 미드필더인 것이다.

”

그러나 외국에서 최신정보를 수집할 때도, 외부 기관이나 외국의 연구자들한테서 자료를 수집할 때에도, 웬만한 인맥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최신자료를 선뜻 메일로 받아보기는 쉽지 않다.

실험을 할 때에도 때로는 다른 실험실을 이용해야 하고 다른 연구소나 때로는 외국의 실험실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때에도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어 놓아야 이러한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연구에서도 미드필더십이 필요한 직종이다. 늘 서로서로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러한 것을 미드필더십으로 잘 이끌어 나갔을 때 시너지를 발휘하여 좋은 연구결과를 낼 수 있다.

육계산업도 이런 미드필더가 많이 필요하다. 2조의 생산액 규모를 넘어 더 큰 육계산

업으로 발전하고 이제 FTA를 통해 외국에 활짝 열린 우리시장을 보호하고 선제적으로 외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자신도 발전하는 상생과 양보의 표상 미드필더가 많아져야 할 이유이다.

서로의 치열한 선의의 경쟁과 함께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을 내어줌으로써 같이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나는 오늘도 스포츠채널의 프로축구 경기로 채널을 돌렸다. 축구를 통해 미드필더들의 빛나는 모습들을 보고 싶기 때문이다. 